

<데일리한국>에서 함께 할 채용형 인턴기자를 모집합니다

<데일리 한국>에서 함께 할 채용형 인턴기자를 모집합니다. 정치외교학과 재학생/휴학생/졸업생을 중심으로 지원 가능하며, 학과-데일리 한국의 공동 절차를 거쳐 선발합니다. 인턴기자 월급은 최저시급 기준이며 근무 기간 등은 협의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박명호 교수(mpark@dongguk.edu)에게 연락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데일리 한국> 인턴기자 경험자의 후기로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한국 정치부 인턴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예입니다. 1개월의 기간으로 예정됐던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5개월을 향해가는 중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슈에 대응하는 일에 큰 매력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모두 저를 인턴이 아닌 기자로서 대해주십니다. 이에 따라 업무 역시 전부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진행되고 취재 지원도 요청하면 아낌없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현재 저는 국회에 출입하며 국정 현안과 관련된 소식을 위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치부에 있으면 정치외교학 수업에서 배운 이론들이 현실정치에서 보이기 때문에 흥미롭기도 하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정치적 사건도 글로 정리하기에 수월할 때가 많아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자도, 사회생활도 모두 처음이라 서툴고 부족한 점투성이지만 데스크에 계신 부장과 국장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챙겨주신 덕에 지금까지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은 기자라는 직무에 맞게 기삿거리를 찾아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일입니다. 인턴인 제게 의무 사항은 아니었지만, 일보와 발제 기사를 작성하고 간간이 미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이슈들이 팝콘처럼 계속 터져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라디오 인터뷰, 당대표·원내대표·비대위 회의, 기자회견, 개인 SNS, 당 논평, 보도 자료 등에서 나오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목하면서 이슈의 경중을 판단하고 기삿거리를 찾습니다.

사건 하나가 연속된 반응으로 이어지거나 다른 이슈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사를 정리하곤 합니다. 가령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안이라고 한다면 각각 어떤 논리로 서로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는지 정리한 뒤 국회 공백으로 인해 인사청문회 차질 등의 파장을 따라 이슈를 쫓습니다.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는 이슈라면 정치인들의 설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찾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취재를 통해 르포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고 전화나 인터뷰를 통해 정치평론가나 정치인, 대변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등 입장을 물어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취재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유의미한 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질문과 구도를 고민하는 것이 일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으나 직무에 요구되는 점을 꼽자면 하루에 정말 많은 글을 읽기도 하고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 맥락을 풀어 글을 써야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독해력과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에 더해 자신이 담당하는 영역을 예민하게 주시하며 꾸준히 공부하려는 자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성과와 성취감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배워가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면 잘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2년 2월 한달간 데일리한국 인턴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합정 넘어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근처에 있고요, 합정역에서 버스를 타도 됩니다. 간단한 업무설명과 시스템 적응이 끝나고, 인턴을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하게 될 일은 아마 아침 라디오를 듣는 일이 될 겁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라던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같은 프로그램들이죠.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항상 빠질 수 없는게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보고, 거기서 어떤 것이 기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다!” 싶으면 제목을 달아보고, 다시 내용을 채워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턴 업무는 아마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기사를 쓸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글은 ‘역피라미드형’이 되어야 합니다. 기사의 내용과 핵심을 요약할 수 있는 글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와야 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다음에 들어가고, 다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고... 즉 중요도의 순에 따라 문장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역피라미드’의 모양을 상상하면서 연합뉴스나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기사들을 읽어 보세요.

기사를 송신하고 난 뒤, 맨 앞에 붙게 되는 [데일리한국 000 기자] 안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한 감정이 들게 됩니다. 이런 감정도 결국은 익숙해지죠. 어느 순간 신기함 대신 익숙함이 자리잡게 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데스크에서 여러분의 글을 수정하는 빈도 또한 줄어들게 되고, 성취감은 거기서 나오죠.

데일리한국 인턴 경험은 언론사의 구조와 업무를 실제로 배워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기자가 되고 싶다거나, 기자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